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적응성 저해요인 분석*

장 진 경(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교수)

전 종 미(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신 유 경(숙명여자대학교 석사과정)

I. 서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농촌총각들의 결혼을 위해 국가가 중국 동포 및 한족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도시 남성들과의 국제결혼으로 확산되면서 농촌이라는 지역적 경계에 따른 특수한 사례가 아닌 한국사회의 새로운 결혼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필리핀·일본 국적을 가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동남아시아 나아가 러시아까지 국제결혼 대상국이 넓어졌다(보건복지부, 2005).

한국의 국제결혼건수는 1990년 4,710건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38,491건으로 약 11배 정도 증가하였다. 더욱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결혼은 1990년 619건에서 2007년 31,180건으로 50배 정도의 증가를 보인 반면,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1990년 4,091건에서 2007년 9,351건으로 2.2배 정도의 비교적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결혼으로 인한 외국 여성들의 이주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통계청, 2008).

이처럼 외국인 여성과 국제 결혼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 갈등을 주제로 하는 학문적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결혼이민자 여성이 안고 있는 주된 문제점으로는 제한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Menjivar and Salcido, 2002; 이금연, 200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과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Fagan and Brune, 1994; Abraham, 2000; 양철호 외, 2003; 이금연, 200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사회적 편견(손민규, 2007; 홍상희, 2008; 김민영, 2008),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시댁과의 갈등(홍기혜, 2000), 남편의 좋지 않은 습관과 성격의 차이(성지혜, 1996; 강유진, 1999; 이규삼, 2000), 가정 내 역할기대의 불일치(성지혜, 1996; Rhee, 1997; 홍기혜, 2000), 새로운 환경과 가족의 불신(윤영주, 2001) 등이 지적되었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7-B00592)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부적응 및 위험요인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그들만이 겪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져 사회정책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이제는 진정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적 서비스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주로 NGO를 통해 도움을 받고 해결해왔으나 최근 다문화가족의 수적 증가와 이들이 갖는 다양한 문제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전국적인 규모로는 처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와 보건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홍달아기·채옥희, 2006).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존연구는 결혼이민자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문화가족내 어려움을 통계적 수치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¹⁾.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을 밝힌 연구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실태중심의 양적연구가 대부분이며, 결혼이민자여성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겪는 스트레스와 심층적인 요인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심층면접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양적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였으며, 결혼이민자여성과 남편, 시부모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 가족이 경험한 내용을 근거로 적응성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에 기여할 것이며,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적응성 저해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가구당 구성원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는 주체 자신이 만든 주관적 의미를 배경으로 한 질문들을 탐구하기 위해 언어적 접근방식을 택하였으며, 충분한 공감과 수용으로 질문자와 참여자 사이에 신뢰적인 상황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객관적 측면들을 사전에 분석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문제들과 관련된 개방형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법의 장점은 어떤 주제에 대해 참여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1) 결혼이민자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요인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강유진, 1999; 강혜순, 2000; 보건복지부, 2005; 이강숙, 2007; 서영주, 2004; 이금연, 2003; 홍달아기, 채옥희, 2006)가 이루어졌으며,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교육과 적응에 관한 연구들(교육인적자원부, 2006; 오성배, 2007; 김갑성, 2006; 오성배, 2006; 정은희, 2004; 박미경, 2007; 권오희, 2006; 안은미, 2007; 최연실, 2006)이 이루어졌고, 다문화가정의 적응과 갈등에 관련된 연구들(양순미, 2006; 김오남, 2006; 소은덕, 2006; 박형식, 2006; 김오남, 2005; 신경희, 2004; 손은록, 2004; 손민규, 2007; 이정희, 2006; 구차순, 2007; 이혜정, 2007; 노하나, 2007; 손민규, 2007; 최금혜, 2006)이 있다.

참여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구·태도·감정 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이효선, 2005).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검토하였으며, 참여자들은 그들의 주관적인 관점과 해석을 개방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참여자는 자신이 심문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심층면접 중에 되도록 동등하고 개방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참여자 자신도 연구 과정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복지센터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접촉 및 공문발송을 통해 승낙을 얻은 후, 본 연구자 및 연구원들의 직접 방문으로 실시되었다. 심층면접은 센터 내의 상담실 혹은 면접대상자의 집 등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1차 면접은 평균적으로 80분이 소요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자료의 보완 및 보충을 위해 추가면접이 실시되었다. 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면접내용은 결혼과정·가족관계·사회적응과정 및 사회서비스욕구 등이 포함되었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면접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을 하였고, 전사본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2. 면접대상자의 특성

우리사회가 핵가족화 되었으나 확대가족과의 끊임없는 접촉이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내 역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혼으로 인해 한국에 귀환한 결혼이민자여성 뿐만아니라 남편, 시부모 등을 포함하였다. 총 31가구인 93명을 심층 면접하였으며, 면접대상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면접대상자의 특성

N=93

변 수	출신국	명(%)		
결혼이민자여성 출신국	필리핀	5(16)		
	베트남	15(48)		
	중 국	9(29)		
	몽 골	1(4)		
	캄보디아	1(4)		
	계	31(100)		
연 령	아 내	20대	22(71)	
		30대	8(26)	
		40대	1(3)	
	남 편	30대	15(48)	
		40대	14(45)	
		50대	2(7)	
	시부모	50대	4(13)	
		60대	15(48)	
		70대	11(35)	
		80대	1(4)	
	학 령	아 내	초	2(7)
			중	7(23)
고			8(25)	
초대졸 이상			9(29)	
무응답			5(16)	
남 편		초	-(0)	
		중	3(10)	
		고	13(41)	
		초대졸 이상	12(39)	
		무응답	3(10)	
시부모		무학	26(84)	
		초	2(6)	
	중	-(0)		
	고	3(10)		
종 교	아 내	유	22(71)	
		무	9(29)	
	남 편	유	21(68)	
		무	10(32)	
	시부모	유	19(61)	
		무	12(39)	
시부모 동거여부	동 거	24가족(77명)		
	비동거	7가족(23명)		
직 업	아 내	유	8(26)	
		무(전업주부포함)	23(74)	
	남 편	유	26(84)	
		무	5(16)	
	시부모	유	5(16)	
		무	26(84)	

면접대상자 중 결혼이민자여성의 출신국은 필리핀 5명, 베트남 15, 중국 9명, 몽골 1명, 캄보디아 1명이었으며, 이들 중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2명이었다. 이들의 결혼지속연수는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8년이였다. 결혼이민자여성의 연령의 범주는 22~46세이며 참여자 중에서는 23세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2세 순으로 나타나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의 연령은 32~56세로 37~38세가 가장 많았으며, 시부모의 연령은 52~81세 사이의 범주에서 66~67세가 가장 많았다.

현재 시부모와 동거 중인 가족은 24가족(77%), 비(非)동거 가족은 7가족(23%)이었고, 현재 임신 중인 가족을 포함하여 27가족이 자녀와 함께 동거 중이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에서 대학졸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종교의 경우 아내 71%, 남편 68%, 시부모 61%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톨릭·불교·기독교·통일교 순이었다. 면접대상자들의 직업은 결혼이민자여성들의 경우 8명(26%)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의 직업은 영어과외교사, 학원교사, 그 외 공장근로자, 식당보조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남편의 경우 26명(84%)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업·자영업·회사원으로 나타났다. 시부모의 경우 직업이 없거나 간단한 소일거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의 월 가계소득은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소득은 약 224만원이었다. 통계청(2007)의 발표에 따르면 도시근로자중 가구원 수 3.37명을 기준으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약 3,675만원(월평균 약 307만원)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연구의 객관성 확보

본 연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Guba와 Lincoln(1981, 구차순, 2007에서 재인용)이 제시한 4가지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개념은 연구의 진실성(True Value)으로서 내적타당도에 해당되는 개념이며 ‘믿을만하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관련 사업을 담당하며 이미 그들과 신뢰관계가 있는 담당자를 통해 적합한 연구대상을 소개받아 연구자에 대한 경계심을 감소시켰다. 또한 그들과 1대 1로 만나 독립된 공간에서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충분히 공감해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분석과정에서도 연구자 3인 외의 5인과 더불어 개념을 확인하고 분류하며 명확화하기 위한 10여 차례 이상의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개념으로 연구의 적합성(Applicability)은 외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자료자체의 적합성여부를 나타내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 전 외국 국적을 가진 여성과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국인남성, 시부모를 면접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면 적합한 연구대상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특성과 다양한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그들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그들이 속한 집단, 상황, 환경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기관담당자의 의견도 수렴하여 적합성의 기준을 충족하려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일관성(Consistency) 개념은 신뢰도와 같은 개념으로 연구결과가 반복되는 정도를 말한다. 이 개념은 질적연구에서 경험의 중요성과 인간상황의 독특함으로 대체될 수 있다(김연미,

2003). 따라서 문헌고찰을 통해 본 연구주제에 영향을 주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심층면접 및 결과분석 등의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면접대상자의 경험과 상황을 존중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분석하며 검토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중립성(Neutrality) 개념으로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숙련되고 교육받은 면접자들을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현장의 특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결과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중에도 함께 참여하여 어떠한 선입견으로도 연구결과가 희석되지 않도록 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면접대상자들이 경험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근거하여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으로 그 내용을 분류하였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식생활의 차이로 오는 불편함, 필리핀 혹은 베트남 등의 국적을 가진 경우 한국의 봄·가을·겨울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오는 불편함, 언어적인 습득이 늦거나 습득의지가 없어 생기는 어려움,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면접대상자의 경우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및 여성의 경력단절로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포함되었다.

가족적 요인은 여성들의 출신국가가 각 구성원들의 개인적 인식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가족 내 무시와 소외감,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기는 오해, 부부간의 역할기대의 불일치로 오는 갈등, 또한 대부분의 여성이 친정에 송금을 원하지만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는 경우 생기는 불만이 가족 내 적응성 저해요인으로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은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오는 외국 여성들’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겪는 차별과 소외감이 두드러지며, 시부모와 남편의 경우 결혼이민자여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에 무관심하여 가족 내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1.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적응을 저해하는 개인적 요인은 무엇인가?

면접대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결혼이민자여성의 본국 음식의 맛과 향, 조리법, 스타일에 익숙하여 한국음식의 맛과 향 등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베트남이나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우 따뜻한 기후에 익숙하여 한국의 사계절을 맞이하였을 때 적지 않은 당황스러움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의 경우 언어적인 불편을 경험하는데 일방적으로 여성들의 한국어습득을 요구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한국어 구사 부족으로 가족간의 오해가 발생하여 시부모 및 남편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결혼이민자여성의 개인적 성향이 내성적인 경우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도 옳거나 일방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아 이 또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인 풍요를 기대한 결혼이민자여성의 경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을 저해하는 개인적 요인으로 식습관의 차이, 기후변화, 언어습득의 어려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1) 식생활의 차이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 중 결혼이민자여성(며느리)은 본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고 싶어 하였으나, 다른 가족구성원 특히 시부모 경우 본인에게 익숙한 음식이나 입맛을 바꾸길 어려워하였다. 시부모는 음식의 향과 맛이 비위가 상하여 거부하거나 새로운 음식의 맛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으므로 결혼이민자여성은 자연스럽게 한국음식의 맛과 조리법이 익숙하도록 훈련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하루 세끼 식사를 푸짐하게 먹는 한국의 식습관 전통은 결혼이민자여성들에게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다가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익숙해지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기 판에는 베트남 음식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월남쌈은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질렸어요. 뭐 이 집 가서 먹고 저 집 가서 먹고. 월남쌈은 질려서 못 먹고. 베트남 음식을 집에서 해주면 안 맞으니까 자기는 실망을 하죠. [사례. 2-c²]

○ 베트남 음식은 쌀을 말아가지고 그렇게 해논거. 그거는 먹어봤지. 근데 우리 며느리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싸고 그냥.. 그랬지. 베트남 음식은 나랑 안 맞아. 냄새나 무슨 뭐 그런 걸 좋아 하더라고 그런데 그건 나랑 안 맞아. [사례. 5-c]

○ 몽골에는 밥을 먹으면 한국처럼 반찬 많이 없어요(한국 되게 많죠..). 많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왔다가 반찬도 많고 한번 설거지 하면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그것도 스트레스 받더라고 요. [사례. 8-a]

2) 기후의 변화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 더운 날씨에 익숙한 결혼이민자여성들은 한국의 봄, 가을, 겨울을 몹시 견디기 어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계절에 적합한 옷을 선택하는 것도 어려워 특별히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임신 중에도 반팔을 착용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남편이나 시부모의 경우에도 아내(며느리) 국가에 방문하여 심한 기온 차로 인해 감기에 걸리거나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나 결혼이민자여성 출신국으로의 이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하였다.

○ 괜찮아. 근데 날씨도, 날씨는 여기 봄 있잖아, 여름, 가을, 겨울 있어. 겨울 너무 추워요(겨울.. 필리핀은 겨울). 겨울 없어요. 여름 이에요. 여름. always summer. [사례. 1-a]

2) 여기서 사례 2는 면접대상자 가족번호를 지칭함. 그리고 a는 결혼이민자여성을 칭하며, b는 남편, c는 시어머니 혹은 시아버지를 칭하는 것임.

○ 그것도 불편한 점이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못 간다는 거. 그 나라 가면 말도 못 듣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주고는 쌀하고 라면을 다섯 개를 가져가 고. 그 나라랑 우리 나라랑 기후가 기온차도 그렇고 달라요. 거기는 낮에는 열두시까지지는 더워요. 기온차가 안 맞으니까. 12시면 완전 겨울이예요. 그래서 금방 감기 걸려갖고 와요. 감기 걸리면 일주일 걸려요. 그래서 저도 가서 걸리고 저그 엄마도 그랬지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내가 나가기가 힘들거예요. 먹는 거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그게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못가요. [사례. 31-b]

3) 언어습득의 어려움

연구에 참여한 32가족 중 28가족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여성이 한국어를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민자여성의 한국어실력이 가정 내 의사소통기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고,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실망감을 갖게 하였다. 특히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언론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발음을 요구하거나 외국인에게 어려운 받침글씨는 한국어 습득의지를 좌절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편과 시부모의 한국어 습득에 대한 기대도 결혼이민자여성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도 하였으며, 억양과 목소리 크기 등은 본의 아니게 오해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시부모와 결혼이민자여성의 경우 언어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겪는 오해와 갈등이 마음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여 고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배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ㅍ’이 들어오면 욱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쓰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이제 말 끝 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러다 보면 ‘ㅍ’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속어이니까. [사례. 16-b]

○ 많이 모자라죠. 기본적인 거는 아는데, 쌍 받침 같은 거 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할 적에는 발음이 지가 한다고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귀가 어둡거든요. [사례. 16-c]

○ 그거 말고 또 말을 2년 이래도 남들은 잘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아직 멀었어요. 살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지요. 근데 처음부터 답답하게 생각을 안했죠. 왜냐하면 문화도 틀리고 나도 그 나라 말 모르고. 그런데 좀 알수록 기대치가 큰 거예요. 왜 알만한데 못할까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좀 그렇죠. [사례. 4-b]

○ 처음에 말이 안통해서.. 엄마하고. 왜냐면 거기는 목소리를 크게 하면 화난 줄 안대요. 거기는 그렇대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 안 나도. 근데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화난 줄 알고 좀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목소리 원래 커서 그렇지, 톤이 높아서 그렇지 화나서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하다, 어떻게 하다 말이 안통하고 어찌고 하니까, 엄마도 인제.. 예를 들어서 뭘 하더라도, 애기엄마가 얘기를 하더라도 애기엄마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다 싸우다가 한번은 싸우다가 간다고 “너 맘대로 해” 그러니까 나갔어요. [사례. 18-b]

4)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개인성향

국제결혼을 선택한 여성의 경우 밝고 활달하며 생활력이 강하여 한국이라는 나라에 잘 적응하기도 하지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 스트레스는 비슷하더라도 이를 표현하는데 서툴고 일방적으로 참고 넘어가는 경우 울기, 참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을 키워 한국에서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의 반응에 남편이나 시부모의 경우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참으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만을 갖고 있었다.

○ 지금 한국에 오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여러 가지 베트남에서 처갓집에서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 것 때문에 가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할 때마다 안쓰럽고 ... 향수병이 심해. 심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례. 14-b]

○ 저는 와서 많이 울었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어디 가면 계속 따라다녔어요(엄마랑 계속 따라다녔어요?). 네. 19살도 계속 붙어 다니니까(계속 붙어 다녔어요.) 네. 엄마가 외할머니랑 집에 가도 울었어요. 삼일 안 해도. 시집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시집와서 다 어려서 시집와서 다 먹고 다 그래. 엄마도 옛날에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 다 잊어. 엄마 계속 얘기 해줘서 참아라, 참아라. 먹고 싶으면. 울고 싶어도 아, 눈물도 참고 계속 '참아라. 나중에 괜찮아. 참아라.' 그래서 계속 참았어요. 그래서 한 달 후 한국 와서 한 달 후에 임신했어요(너무 기뻐했겠어요!). 네. 임신도 해서 몸이 이상하고 왜 모르게 배도 아프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맨날 즐리고...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 가서 그 때 임신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울었어요. [사례. 18-a]

○ 외롭게 살다가 나한다 진짜 고생 많이 해가지고 나이 16살 먹어가지고 집 나와 가지고 지금 나이 50이 넘었지만은 고생도 웬만큼 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잘해준다고 잘 해주는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지만은 왜냐면은 외국서 와가지고 하기사 성격 안 맞아가지고 그런대로 내가 많이 이해를 해볼고 같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그냥..같이 먼 이야기를 해도 성질이 개떡같아가지고 먼 이야기를 하면 지 맘에 안 들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말도 안해요. 일을 나가도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는가 보다 금계 비위 맞추기가 억스로 힘들어요. [사례. 10-b]

5) 경제적 어려움

면접대상자 중 결혼이민자여성들은 자신의 국가에서 경험한 가난을 극복하고자 국제결혼을 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의 경제 상황이 자국의 상황보다 낫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이므로 좌절을 경험한다. 한 가족이 한 구성원의 소득에만 기대하여 생활을 유지해야하는 경우에는 뼈뚫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아이들의 교육과 남편의 은퇴연령이 가까워 옴에 따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처방편으로 결혼이민자여성들이 본국에서 활동하던 경력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직업을 구하려고 했을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부당했던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 (남편 분은 하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 일이 없어요. 공부하고 있어요(어렵게 공부하셨는데 너무 아깝네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3년 전에 무슨 일 때문에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이름 쓰고 돈 빌렸는데 제가 보증했어요. 돈 안 갚아서 3년 전에 우리 집 다 경매로 했어요. 돈 다 없어졌어요. 또 빚이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우리 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3년 전에는 중국에 몇 번 다녀오실 수 있었어요?). 네 그 전에는 1년에 한번정도 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어려워요. **[사례. 21-a]**

○ (뭘 때문예요?) 장모님하고 처형하고 한국에 와서 6개월 살았어요. 6개월(그동안 돈 많이 쓰셨구나) 거기 필리핀이란 데는 여기 나올라 해도 10원짜리 한 푼을 안 쓰고 나와 10원짜리 한 푼 안 쓰고 나와 여기서 내가 보내주면 이제 고놈 갖고 동사무소가고 면사무소 가고 그러지 지그 나라 돈으로 안 쓴다고.. 한 100달러만 보내 주면은 100달러면은 현재 한 10만원밖에 안돼요. 그거 보내주면 2~3식구는 아무 말 없이 먹고 살아요. **[사례. 12-b]**

○ 그렇죠. 특별한 이윤 없고 가끔 한 번씩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솔직히 일을 해서 일이 있음 나가고 없으면 들어오고 그래요 솔직히 내가 이 앞에서는 하던 게 좀 있어가지고 급히 나갈 물건이라 해놓고 시간이 ***튼요. 그것도 없어요. 일이 없어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근데 지금도 가끔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프다 이 소리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좀 주세요.’ 이거야. 엄마 아프다 이 소리는 돈 좀 주세요. **[사례. 12-b]**

○ (한국 물가가 좀 너무 비싸죠?) 네. 계속 오르고. 우리는 아버지는 장애인이니까 못 벌어서 어머니는 팔 아파서 직장을 못가고 경비실 한 백만원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례. 18-a]**

2.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적응을 저해하는 가족적 요인은 무엇인가?

면접대상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그들만의 가족문화와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었다. 연애결혼이나 중매결혼에 상관없이 같은 국적을 가진 가정과는 달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갈등과 오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저해하는 가족적 요인을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친인척과의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면접대상자들이 경험하는 고부간의 갈등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며느리와 관계에서 생기는 미묘한 행동과 한국어 구사능력 부족으로 인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이 오해와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국제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면접대상자는 가정 내에서 상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아내의 경우 가부장적인 남편의 행동이나 사회적인 편견의 영향으로 아내의 행동을 구속하거나 차단시키는 행동을 통해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반면, 남편은 결혼이민자여성(외국인아내)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한국의 유교적인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실수들을 통해 어려워하고 있었다. 세 번째, 친인척과의 관계 속에서 면접대상자들은 친정에 송금을 원하지만 이를 충당할 수 없는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거나 멀리 타국에 있는 친정을 그리워하며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1) 고부간의 불신

면접대상자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형성하고 그들이 가진 서로의 독특한 문화를 인정하며 관계를 형성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상대적으로 고부간의 관계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시부모의 보수적인 성향과 외국인 며느리의 개방적인 성향이 갈등을 유발 심화시키고 있다. 시부모의 기준에 며느리의 집안일 솜씨가 못 미치는 경우에 잔소리를 하게 되고 이를 순종적으로 수용하여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고부갈등은 심화되며 이로 인해 서로가 서운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친정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며느리와 본인의 가정이 한국에서 넉넉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시부모는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이 또한 고부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어머니 마음에는 아직 안 들어.”, “엄마하고 그렇지.. 엄마가 성격이 좀 급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직 1년 조금 넘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혼내는 것인데 자기 대에는 혼내는 것인 줄 알고 당황해가지고 잘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빠지고 이게 지금 1년 넘었는데 좀 그래 가지고.. 그 것 때문에 걱정...”, “어떻게 중간에서 진짜 아휴.. 그럴 때는 집을 나가고 싶어요. 이 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이 쪽 편을 들 수도 없고, 말이 안 통하니까” [사례. 23-b]

○ 첫째는 말을 안 해. 말을 잘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갔다가 오후에 와도 인자 오세요. 돌려다 보는 법도 없고 통 그런 게 말이 없어. ... 어른 공경하고 그럴 거잖아. 말만 틀리지. 그런데 그걸 안 해. ... 알미운 생각이 들어가서 정이 뚝 떨어져. [사례. 30-c]

○ 친정 엄마가 아파서. 그쪽에서는 우리 형편을 모르니까 이제 돈도 바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넉넉하면 쓴디. 안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제 며느리가 울고 막 그랬나봐 즈그 엄마가 아파서 있다고 하니께 속상했겠제. 나한테는 말 안하고 우리 아덜이 돈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나는 모른 척 했어. 그래도 말은 내가 잘 안해. 내가 또 말하면 듣기 싫제 [사례. 14-c]

○ 그냥 처음에는 와서 여기 왔을 때 손님처럼 그냥 살더라고. 나 몰라라 하고 모든 걸 다. 그리고 뻑 하면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라 그랬지. 가고 싶으면 가라고. 굳이 붙들지는 않으니 까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 대신 여기서 살면 주인으로 살아야지 나그네처럼 손님으로 살려면 아예 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체 살림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음식 같은 거 좀 지가 배워서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좀 배워라 그래도 안 배우고, 잠만 자는 것 밖에 몰랐으니까 먹고 자고 먹고 자는 것이 일어였어. [사례. 2-c]

2) 부부간 역할기대에 대한 불만족

면접대상자들은 일반적인 부부가 경험하는 갈등과 더불어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인 차이는 언어, 경제적인 문제, 식습관 등의 개인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어 부부관계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확대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비취지는 서로의 모습은 갈등의 깊이를 더욱 깊어지게 하였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보여주었던 행동과 한국에서의 모습이 달라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였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남성상을 고수하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부부간에 기대하는 역할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생기는 오해와 스트레스로 명명하여 볼 수 있었다.

○ (남편은 **님을 보고 어떤 점이 좋다..보고 어떻게 말하셨어요?) 남편은 나한테 사랑 많이 있지만 근데 바깥에 가면 남편과 같이 가면 남편이 조금 내 느낌에 남편이 힘들 것 같아. 실제로 남편 사랑 많이 있고 바깥에 있으면 좋다가도.. 필리핀 있으면은 같이 손 붙잡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느낌이 이상해요. 이 남자가 조금 불편해요. 챙피할 것 같아. 와이프가 외국 사람인데. 우리 이웃사람 친구 말 많이 하고 남편과 종종 많이 가요. 남편과 종종 조금 불편해요. 필리핀 사람 와이프 챙피해 그렇죠 [사례. 1-a]

○ 좀.. 문화적 차이가 없지는 않았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이 몸에 베이다보니까, 여기는 좀 틀리잖아요. 어르신들 많이 **하고..시집가면 없는 살림은..다 알아서 하고..그런 게 좀 힘들었죠. 그 쪽에서는 거의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다 밥도 안하고 집에서 그러잖아요..처음에는 그런 게 좀 문화적 차이여서 힘들었어요. [사례. 21-a]

○ 근데 그게 나는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남편은 여기 왔으니까 여기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게 너무 막 **한거 같고 많이 싸웠어요. [사례. 31-a]

○ 그건 뭐 같이 만나서 싸돌아 댕기고 나가서만 살려고 하니까...(아무래도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너무 그쪽 사람들하고만 서로 어울리려고 하니까 서로 다 같이 이쪽 사람들 하고도 어울리려고 해야 하는데...(두루두루 잘 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게 없잖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지. [사례. 31-b]

3.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면접대상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소외감을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비해 ‘부유하지 않은 국가 출신일 것이다’라는 그릇된 사회적 인식은 다문화가족의 여성들에 대해 ‘코리아안 드림을 가진 여성’이라는 편견을 갖게 하였다. 이로 인해 받는 상처와 아픔은 한국사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한국사회의 적응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및 서비스지원도 결혼이민자여성에게만 집중되어있으며, 남편이나 시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도

좀처럼 관심이 집중되지 않아 국제결혼가정으로서의 기능향상은 쉽지 않았다.

1) 차별과 소외감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외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감은 다문화가족의 여성과 남편, 시부모에게도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은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속한다.’,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여성은 한국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기대한다.’ 등과 같은 사회적인 편견은 이들의 생활 곳곳에서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에게 차별과 소외감을 경험한 면접대상자들은 한국사회의 인식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하게 언급하였다.

○ 그니까 시선이 좀 달라지니까 중국은 후진국이라는.. 그건 옛날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너무 깊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좀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한국이 선진국이고 한국이 켈 좋고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는 버려야 하잖아요. 이제는 다문화 세계잖아요..한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고 후진국이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우습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사례. 31-a]

○ 네..그러니까 그게 자격지심이라고도 말할 순 있겠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기 분들이 아직은 이런 인식이 넓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왔다고 특히 중국의, 중국 사람들은 도망을 많이 간다는.. 그런 일도 많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한국 사람인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중국 사람인걸 알게 되면 시선이 달라진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진짜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 너무 우습게 보는. 사람이 한국에서 사는 것 빼고는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막 갖게 되더라고요. 집도 콧구멍만하면서..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예요. 근데 주변에 막 저를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막 상처를 받아서..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왜 나를 욕하고 그러나..해서. [사례. 13-a]

2)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무관심

한국사회는 국제결혼가정의 급증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외국인 여성을 위한 한글교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 한국에서의 적응을 위해 언어, 요리, 문화체험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결혼이민자여성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조차 없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는 결혼이민자여성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만아니라 참여의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의 건강한 기능향상을 도모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 (어머니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 있으세요?)
아니 나는 TV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아니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며느리분이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배우고 있으시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있으세요?) 잘 몰라..(그러면 며느리분이 많이 배우시고 있으시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하신 프로그램은 없으시고요?) 응 [사례. 20-c]

○ (가정폭력 피해자, 결혼 생활에서 문제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아세요?) 몰라요(****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무료법률 서비스랑 통역 제공하는데 알고 있어요?) 없어요 [사례. 28-a]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적응성 저해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가족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 심층면접방법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들이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갈등요인을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각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경험하는 개인적 갈등요인으로는 식습관의 차이, 기후변화, 언어습득의 어려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한국음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매콤한 맛과 강한 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따뜻하고 습한 날씨에 익숙한 여성들이 한국의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도 이들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족들의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으로는 받침 글씨, 발음상의 문제로 인한 언어습득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이는 가족관계속에서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였다. 특히 결혼이민자여성들의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주로 나타나는 갈등 해소 방법이 무조건적인 인내와 울기 등의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대처도 적응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들이 경험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생활 곳곳에서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남편의 은퇴연령을 고려할 때 자녀교육비의 걱정은 이들에게 한국사회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형성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은 고부간의 불신, 부부간의 역할기대의 불만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시부모와 개방적인 외국인 며느리와의 만남은 생활사건들 속에서 미묘한 오해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으며 이를 통한 불신은 관계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불일치할 때 이들의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스트레스는 가족의 건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차별과 소외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와 정책에 관한 무관심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한국사회 속에서 국제결혼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이들을 바라보게 하고 이에 따라 행해지는 차별과 그들이 경험하는 소외감은 한국사회에 대한 불신과 상처를 경험하게 하였다. 또한 이들의 복지개선을 목적으로 국가와 민간에서 실시되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참여의지가 부족하여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서의 건강한 주체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다문화가족 내 각각의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받은 영향도 가족의 건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무시할 수 없었다. 이는 한 개인이 가족과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가족과 사회에도 미치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각자의 ‘식생활로 인한 차이’, ‘기후변화로 인한 낮춌’, ‘언어습득의 어려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개인성향’,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구조 속에서 ‘고부간의 불신’과 ‘역할기대의 차이’로 인한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는 이들에게 등한시 되었으며, 사회 속에서 ‘차별과 소외감’은 개인과 가족에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방임하고 지나치게 하여 도리어 개인의 상처를 더욱 깊어지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에게만 일방적인 적응을 요구하고 그들만의 갈등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노력이 합쳐질 때에 그에 따른 영향이 상호보완적으로 사회에까지 미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찾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언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을 한국사회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수용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하는 행동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각 시, 구, 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공익광고를 통해 한국사회 내에서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주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한국사회 이해교육, 상담, 한국어교육 등 결혼이민자여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인식개선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은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한국인에게 다문화교육(각 나라의 인사말 배우기 등)을 시키는 수준에 불과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관련 부처의 공익광고를 통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전국의 많은 다문화가족이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고,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응을 도모하는 관련 사업과 더불어 인식개선위한 프로그램의 양도 확대되어야 하며, 그 내용면에서도 각 국의 문화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반성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족으로서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 가족구성원들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국제결혼이나 수동적 적응이 아닌 이 사회에 건강한 한국인으로 정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구성원들은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참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관련 기관에서는 배우자교육, 가족캠프 등과 같은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정착 서비스를 받는 가족구성원의 참여의지와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관련 사업과 서비스가 시행되는지도 모르는 참가자들도 대다수였으며, 특히 시부모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서비스주체가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과 참여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주변의 노력과 관심은 모두 허무하게 끝이 날 것이다. 다문화가족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주체가 중심이 되고, 관련기관의 노력도 병행된다면 다문화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은 그리 어려운 과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국가적인 서비스와 정책적인 노력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관련 연구들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를 홍보하려는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서비스요구를 분석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관련주체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갖는다. 그러나 관할 구역 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파악도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결혼이민자여성에게는 언어, 검색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전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면접대상자들 중 관련 정책 및 서비스혜택을 직접적으로 얻은 결혼이민자여성보다 가족관계망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망이 좁은 결혼이민자여성들에게는 서비스의 전달이 어렵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관련기관 및 담당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하며, 접근가능성이 높은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직접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유진(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강혜순(2000). 중·한 섭외혼인 생활의 실태와 전망 여성. 가족생활연구논총 제4권. 61-80.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오희(2006). 국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문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실태.
-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영(2008). 여성결혼이민자 적응지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오민(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2집. 36-76.
- 김연미(2003). HIV/AIDS 감염인의 삶의 과정 : 근거이론 연구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 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형석(2006).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요인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 서영주(2004). 강원지역 외국인 주부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여성정책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 성지혜(1996). 중국교포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대구요성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 소은덕(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은록(2004).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요인과 갈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민규(2007). 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시흥, 안산지역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남성과 필리핀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은희(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농촌사회, 16(2), 151-179.
- 양철호·김영자·손순용·양선화·신봉관·조지현(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 127-149.
- 오성배(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 교육기회실태와 대안모색인간연구. 12집.
- 윤영주(2001).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강숙(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실태조사 및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삼(2000).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이정희(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위기에 대한 사례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효선(2005). 질적연구 : 해석과 이해. 서울:학현사.
- 이혜정(2007). 외국인 며느리를 두고 있는 농촌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자료집.
- 최금혜(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연실(2006). 도시 국제결혼가정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이야기 능력비교,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an.nso.go.kr>.
-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달아기·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홍상희(2008).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 분석.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raham, M.(1999). Sexual abuse in South Asian immigrant marriages. *Violence Against Women*, 5, pp. 591-618.
- Menjivar, C. Salcido, O.(2002). Immigran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Common Experiences in Different Countries. *Gender & society*, 16(6), 898-920.
- PIPER, NICOLA(1997). The legal and social reality of female labour migrants in Japan. *Centre for Applied Population Research, University of Dundee*. 97(3).
- Rhee, S.(1997). Domestic violence and the Korean immigrant family.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4, 63-77.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적응성 저해요인 분석

김 주 희(성신여대)

이 연구는 중요한 측면에서 기존 다문화가족 연구와 차별적 접근을 시도했다. 즉 심층 인터뷰 자료 수집에 있어 결혼이민자여성 자신 뿐 아니라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 등도 함께 연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역동적 가족관계의 틀 속에서의 적응 저해 요인을 분석코자 했다. 이 점에서 연구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의 독창성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 제시와 해석에 있어서는 시도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하겠다. 우선 많은 사람들과 심층적 인터뷰를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한 노력은 돋보이나 이 자료를 질적 자료로 이용하기보다 양적자료로 분석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장점인 심층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요인 설명에 있어 각 사례의 담론 중 일부만 떼어 요인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독자는 그러한 담론을 하고 있는 각 사례의 배경이 더 궁금하다.

각 저해요인의 추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또한 지금처럼 양적으로 이용한 분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각 요인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테면 몇 명 중 몇 명이 기후나 음식이 어렵다고 했는지 등. 여기서 좀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저해요인들이 결혼이민자여성, 혹은 남편에 혹은 시어머니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자에 해당되는 요인들이 섞여 있어 요인의 명료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구자들이 시도했던 입체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적 시도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결혼이민자 여성과 남편과의 관계, 결혼이민자 여성과 시어머니와의 관계,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관계 등 관계적 측면에서 어떠한 적응 저해 요인들이 있는가를 추출해서 분석하고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이럴 때 시어머니와 동거의 여부는 중요한 변인이 되리라 본다. 결과적으로 입체적 연구를 시도했으나 평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든다.

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 어떤 기준을 사용했는지도 밝혀야 된다고 본다. 인터뷰 상황도 보다 자세히,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여성, 남편, 시어머니를 각자 했는지 아니면 함께 했는지,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여성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보완했는지 등.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탐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각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한국가족생활에서의 적응 양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생활에의 적응인지 사회적 관계에서의 적응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간단한 것이지만 학력에 있어 필리핀의 경우 세심할 필요가 있다. 요인분석에 있어 선행연구 결과와의 관계 제시해야 한다.